



[인도네시아 최대 공포] 삼성·LG 등 공장 잇따라 멈춰 03



Economy

코스피 1482.46 (-83.69)	코스닥 443.76 (-23.99)
금리 (미국 3년) 1.15 (+0.05)	환율 (원·달러) 1266.50 (+20.00)(23일)



23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83.69포인트(5.34%) 하락한 1482.46에 장을 마쳤다. 서울 증주 을지로 하나은행 딜링룸. /연합뉴스

# 한은, 긴급처방 증권사RP 매입

코스피·코스닥지수가 다시 5% 이상 급락했다. 원화값도 다시 폭락했다. 문제는 날개 없는 추락으로 바닥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은 한마디로 '멘붕' (멘탈 붕괴) 상태다. 전문가들은 현재 주식시장 바닥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글로벌 경기를 침체에 빠뜨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 진정이 관건이다. 금융시장이 '패닉' (공황) 상태에 빠지자 우리나라 정부는 곧 27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대책을 내놓는다.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비롯해 증권시장안정펀드를

드카가 발명됐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6% 넘게 급락출발하면서다. 이에 따라 개장 직후 양대 시장의 프로그램 매매가 잠시 멈췄다. 발동 당시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7.21% 하락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의 네 번째 매도 사이드카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3.69포인트(5.34%) 추락한 1482.46에 장을 마쳤다. 지난 20일 걸렸던 매수 사이드카를 복기하듯 개인투자자는 9210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인 6400억원, 기관은 3621억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900원(6.39%) 하락한 4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7.22% 떨어졌다. 코로나19와 관련된 300종의 항목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셀트리온은 14.75% 급등해 눈길을 끌었다.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 매도 우위 속에 5%대로 내려앉았다. 23.99(5.13%) 떨어진 443.76에 거래를 마쳤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말동안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만 5000명 이상 급증해 3만명을 넘어섰고 미 의회에서 2조달러 규모의 부양책 표결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 지연에 따른 일본 경기 부담과 미국 실업자 급증 부담에 대한 우려 등 많은 하방 요인들이 제기된 것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지난주 한미 통화스와프(맞교환)로 진정세를 찾는 듯 보였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치솟았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 경쟁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를 위협하는 선까지 떨어지는 등 각종 경제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거래일보다 20원 오른(원화값 하락) 1266.5원에 장을 마쳤다.

소병은 NH선물 연구원은 "상품 부실로 인해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이 발생한 2008년과 달리 현재는 바이러스 전파와 유가하락이 실물경기와 금융시장으로 전이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김희주·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 날개 없는 추락... ELS 1.5조 원금손실 구간

1077개 상품 손실가능성 공시 원유 DLS 90% 이상 손실 우려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의 원금 손실 규모가 1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저금리 시대, 투자 대안'으로 꼽히며 인기를 끌었던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면서 투자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기로에 섰다. 일정 손실을 감안하고 중도 상환을 하거나 만기까지 기다려보는 방법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투자 시점, 손실 규모에 따라 해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등 국내 16개 주요 증권사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발생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한 ELS·DLS는 모두 1077개로 집계됐다. 이들 상품의 미상환 잔액은 총 1조5094억원에

이른다.

ELS는 주가지수나 개별종목 같은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예금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주는 파생상품이다. 주식 투자보다 위험이 낮으면서 예·적금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행한 ELS 잔액은 약 100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시가 안정적일 때는 '중위험·중수익'이 될 수 있지만 요즘처럼 증시가 급락할 땐 '고위험' 상품이다. 통상 ELS는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기준가보다 35~40% 이상 하락하면 원금 손실(낙인) 구간에 진입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글로벌 증시 및 원유 가격이 고점 대비 40~50%까지 급락하면서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한 ELS·DLS가 속출

하고 있다.

현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최근 1년간 고점 대비 65.9%, 브렌트유는 63.8% 폭락했다. 원유 DLS의 90% 이상이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유로스톡스(EuroStoxx) 50 지수는 지난 1년간 고점 대비 34.1% 하락한 상태다. 원금 손실 조건이 발생한 ELS·DLS 대부분이 해당 자산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유럽 경제 위축과 석유 전쟁이 지속될 경우 ELS·DLS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WT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의 지난 2월 기준 잔액은 9140억원이고, 원유 DLS의 대부분은 기초자산에 WTI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면에 계속)

/손영지 기자 sonumji301@



美 대형마트의 텅빈 진열대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22일(현지시간) 3만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감염자가 가장 많이 나온 뉴욕주 전체를 '중대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22일 미국의 대형마트 중 하나인 'Stop&Shop' 내부 진열대가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 개학 또 연기...고개드는 '9월 신학기제'

OECD 국가 대부분 9월 시작 막대한 비용에 현실화 어려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4월 6일로 미뤄지면서 새 학년을 9월에 시작하는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제적인 학사제도에 맞춰 학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지는 취지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데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교육계에서는 당장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코로나 19 여파로 초·중·고교 신학기 개강이 한 달가량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9월 신학기제'를 제안했다. 김도지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역발상이 나온다"라며 "만일 코로나 19로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제안했다.

9월 신학기제는 말 그대로 초·중·고와 대학교의 새 학기를 9월부터 시작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9월 개학하는 나라는 ▲한국(3월 신학기제) ▲일본(4월 신학기제) ▲호주(4월 신학기제) 등 3개국에 그친다.

문민정부 시기인 1997년과 참여정부 시기인 2007년,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에 도입이 검토됐다. 대부분의 나라가 9월에 새 학년을 시작하는 만큼 우수 인력의 국제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게 9월 신학기제 도입 논의의 근거다. 초·중등 과정에서 계속 같았던 2월 수업을 없애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겨울방학을 줄이고야

외활동 편한 여름 방학을 9주로 늘려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9월 신학년제 도입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 3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한 포털사이트 온라인 게시판에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2주씩 개학을 연기해가며 혼선을 주고, 준비도 안 된 온라인 수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학기 시작을 아예 늦추는 게 현실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9월 학기제 도입 검토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글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당장 올해 시행시키는 쉽지 않다는 게 교육계 중론이다. 가장 발목을 잡는 건 10조원에 달하는 제도 도입 초기 비용이다. (2면에 계속)

/이현진 기자 ihj@

코스피·코스닥 5% 이상 급락 양대 시장 한 때 또 '사이드카'

27조 안팎 금융시장대책 예고 증권시장안정펀드 등 조성 추진

한은, 증권사 유공성 공급 확대 비은행 5곳 대상 RP 매입 실시

각각 10조원 이상 조성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23일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한국증권금융 등 비은행 기관 5곳을 대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5개 기관을 대상으로 RP 매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비은행 RP 대상 기관은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영증권, NH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등이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시중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 한은은 RP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한은은 오는 24일에 기일물(14일물 또는 28일물) RP 매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RP 대상 증권도 ▲국채 ▲정부보증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 ▲은행채 등에서 공기업 특수채까지 확대한다. 또 한은 대출담보증권도 은행채와 일부 공기업 특수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양대 시장에 또다시 매도 사이